

책이 펼친 올해의 키워드,

10억



10억 신드롬에

숨겨진 것이 있었으니...

-

어느 때보다 실용서의 강세가 뚜렷했던 2004년이다.

대화법과 처세술을 비롯한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부터 재테크와 투자에 관한 저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책, 한때 '~형 인간'의 붐으로 인해 출간된 도서 등은 베스트셀러 목록 10위권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월급, 재산과 같은 예민한 주제와 직접 결부되는 소재로 '10억'을 다룬 책들이 늘어나면서 독자들은 10억에 열광했다. 지난 해 7월, 《나의 꿈 10억 만들기》(김대중, 원앤원북스)도 사회 전반에 '10억 신드롬'을 가져오는 데 한몫을 했다. 왜, 10억이어야만 하는가.

몇 년 전만 해도 10억이란 숫자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다. 서민들에겐 그저 '큰 꿈'에 불과했다. 지금은 누구나 10억이라고 말한다. 서적도 재테크 방법, 부자되기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보다 10억이라는 분명한 수치를 내세워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부동산으로 10억 만들기》(전영수·원앤원북스) 《세금으로 10억 벌기》(김종필 외,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연봉 10억 만들기》(김농주, 가림M&B) 등 실용서 저마다의 갈래들 모두 10억을 표제로 내세웠다. 이런 책들은 10억 원이란 금액은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독자들을 격려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로또열풍이 불면서 백억 원 단위의 돈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10억은 누구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금액으로 여기고 있는 의식도 확산됐다.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해 타워팰리스에 입주한 평범한 대한민국 월급쟁이 아줌마 이야기들

담은 《타워팰리스 입성기》(유효남, 거름)도 지난 6월 출간됐다. 이 또한 10억 신드롬의 일환이다.

실제로 10억 원이란 돈은 한달에 400만 원씩 꼬박 20년을 모아야 겨우 쥘 수 있는 액수다. 독자들도 "내 집 마련은 물론 자녀 교육비 대기도 빠듯한 현실에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인다.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사회 풍조가 너무 알뜰하다는 반응이다. 몇몇 독자는 제목만 보고 책을 읽었다가 "얻는 게 없었다"고도 한다. 10억 원을 버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대했던 탓이다.

한편 10억 신드롬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초래했지만 '웰빙Well-Being'이라는 또 다른 신드롬을 낳기도 했다. 소득수준이 얼마가 됐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을 바라고 이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누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미묘한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돈만 많이 벌고 보자'는 것에서 '이왕 살려면 남들보다 품격 있고 건강하게 살자'로 의식이 전환된 결과다. 이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서만도 아니다. 최근에는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식품에서 벗어나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습관이나 문화코드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더난출판)의 저자 혼다 켄은 일본에서 순자산 1억 엔 이상의 부자 965명을 조사한 결과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18 퍼센트에 불과한 것을 알았다. 백만장자 5명 중 1명이 밑바닥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가. '부자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증명한 셈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로또를 사고 매일 밤 10억을 꿈꾼다. 독자들은, 10억이라는 눈에 확 뜨이는 제목을 내세우지만 사

람들에게 자기계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게 '10억 저자'들의 공통된 의도임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운운을 기다리며 몸살 앓는 사회에 대한 처방이다.

글 | 홍이현기자

서 점 에 도 '비 싼' 바 람 이 불 었 다

●

'10억'이란 구체적인 숫자를 내세워 서점가에 진출한 책은 2004년 이전에도 많이 있어 왔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나의 꿈 10억 만들기》(김대중, 원앤원북스)가 기준에 있었던 책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10억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인 김대중 씨는 많은 부자들을 만나 얻은 그들의 공통점과 노하우로 10억 원 정도는 누구나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 책을 썼다. 지난해 7월 출간 이후, 여전히 읽히고 있는 걸 보면 책 속에 10억 원을 버는 어떤 방법이라도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 저자는 '45세까지 10억 원을 벌어야 한다'는 가정아래 10억 원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그것을 모으기 위한 자신만의 마스터 플랜, 종자돈 활용법, 재테크 방법, 자산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월급쟁이 10억 벌기》(김주영, 백만문화사)는 월급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모을 수 있는지를 다룬 책이다. 재테크 상담과 저술, 번역일을 하고 있는 저자는 월급쟁이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모아 풍요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소개한다. 단순히 재테크 기술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돈 모으는 8가지 원칙, 씀짓돈과 목돈 굴리는 방법, 세금과 부동산 거래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일러준다.

《나의 꿈 10억 만들기》가 물고 온 10억 신드롬에 부채질하는 책이 있었으니 《150만 원 월급으로 따라하는 10억 재테크》(박윤옥, 영진닷컴)가 그것이다. 월급 150만 원은 20대의 직장인이라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준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사례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 나이대별로 1차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재테크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차이와 함께 소개한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독자들을 실행에 옮기게 하는 힘이 있다.

《세금으로 10억 벌기》(김종필, 흥만영, 중앙일보 조인스랜드)는 부동산 절세방법을 비롯, 부동산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부동산 물건별 각 단계에 따른 세금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각 장별로 개념 가이드, 절세 가이드, 선택 가이드의 세 단계를 통해 절세 노하우를 제시한다. 무작정 내기만 하는 세금보다 알고 내는 세금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아시는지. 세금의 취득·보유·처분에 관한 다른 서적에서 어려움을 느낀 독자들이라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전문창업컨설턴트인 저자가 장사로 성공하는 비결을 담은 《내 장사로 10억 버는 청년창업》(이인호, 이미지박스)은 극심한 취업난에서 발 돌려 적극적으로 자기만의 앞길을 개척해 가는 청년들의 등을 떠밀어주는 책이다. 창업하기 전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서부터 준비절차,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꾸러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장사로 성공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만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면 성공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실전 경험담을 토대로 성공에 가까운 노하우를 담은 이 책은 마음에 위안과 격려를 주는 일종의 창업 지침서다. **추천**

〈현〉

